

마을
인문학

으로서 문학과 문학적 공유성의 양태들

김주현(인제대)

1.교양, 문학, 연구자라는 조합

■ 문제의식의 출발

- ✓ 대학에서 교양학부 교수는 학문적으로 애매한 위치 나 지역사회에서는 ‘전문가’
- ✓ 글쓰기, 문학 과목 교양을 가르치며 불시에 찾아드는 회의: ‘여긴 어디? 나는 누구...?’
- ✓ 교필 글쓰기와 ‘꿀강 ’ 을 찾아 해매는 교육과정 안에서 문학연구자의 문학(행위)는 어떻게 의미 있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나?
- ✓ 읽고 쓰기, 대화하기가 중심인 문학 행위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?

■ 대학 바깥에서 문학하기

- ✓ 연구재단의 인문학대중화 사업 등 대학의 인문학 사업으로 진행: in put-out put 측정의 괴로움
- ✓ 유명 작가의 북토크에 몰리는 사람들
- ✓ 책(문학연구서, 에세이집)을 써서 독자와 만나기
- ✓ 지역의 인문공동체를 찾아가기

4. 문학적 공유성의 양태

■ 읽고 말하기

- ✓ 낭독이 사라진 세상에서 낭송하기- 시 읽기
- ✓ 단락, 구절 함께 읽기- 소설, 에세이
- ✓ 전문가의 해설에 의존하지 않는 읽기
- ✓ 해석, 반응이 필요하면 ‘나의 경험’에서 말하기

■ 듣고 쓰기

- ✓ 골방에 자신을 가두는 쓰기가 아니라 서로 도와 함께 쓰는 글이라는 감각 체득
- ✓ 산업화 시대를 헤쳐온 부모 세대의 이야기 쓰기 → 문학 치유의 효과
- ✓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기 → 여성혐오, 탈핵, 반전 메시지를 담은 작품 읽고 쓰기
- ✓ 전문가의 첨삭에 의존하지 않는 쓰기 → 전문가는 촉진가의 역할. 문법보다 내용

■ 공연하기

- ✓ 아마추어 마실 연극팀 탄생 → 온몸으로 문학하기
- ✓ 문학을 집단의 축제로 향유 + 연결하기
- “ 난리법석 끝에 전광석화처럼 출발한 연극 산국은 제 스스로에게도 무모한(?) 도전이었습니다. 장혜정님 빼곤 전혀 연극무대 경험없는 사람들을 화려한 경력(ㅋ)을 가진 광00가 괜히 시작해서 깡판 만들면 어쩌지? 예산도 전혀없고 오직 참여 배우들의 수강료로 작품이 이뤄지는 현실 자체가...” (광00연출가<산국>연출 후기)

2. 마을인문학과 문학 행위

■ 마을인문학의 이론적 배경

- ✓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인문학의 역할에 주목
- ✓ 전문가, 온라인, 기술 중심 인문학 → 친밀한 대면
- ✓ 커뮤니티 구성원의 자발성, 친밀성, 연대의식 중요
- ✓ 근대문학의 단독성, 고유성, 나아가 저작권이라는 상품성에 갇히지 않는 문학 행위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지지하기
- ✓ 문학을 ‘커먼즈’로 사유하기:
 - －토지, 하천 등 자연자원을 넘어 창조적 공유지로 확대되는 커먼즈론에 따라 문학의 공유성을 살려내는 데 주목
 - －문학의 개방성과 타자에 대한 우애, 환대의 윤리를 실행하는 문학 행위를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실천하기

■ 2013년 당시 현실은...

- ✓ 공립 도서관과 지역대학의 평생교육 과정에 문학관련 강좌가 있었으나 강사 중심 + 등단 목적?
- ✓ 장소를 만들자는 사람들을 만나다
- ✓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

3. 인문공동체 실험과 문학하기

■ 창원 지혜마실험동조합

- ✓ 조합비만으로 운영되는 생활문화공동체
- ✓ 2015년 설립 후 문학 매개 활동 진행→문학 행위
- ✓ 훈훈한 강의: 지역 시인, 작가 북토크
- ✓ <녹색평론> 읽기 모임, 숲에서 걸으며 시 낭송
- ✓ 독서에세이 쓰기:연 2회 대면해 책 읽고 쓰기
- ✓ 희곡 읽기: 100편 읽기를 목표로 비대면 진행
- ✓ 철학, 미술사, 고전 읽고 답사
- ✓ 연극 관람 및 공연:희곡 읽기 팀 중심으로 마실연극팀 발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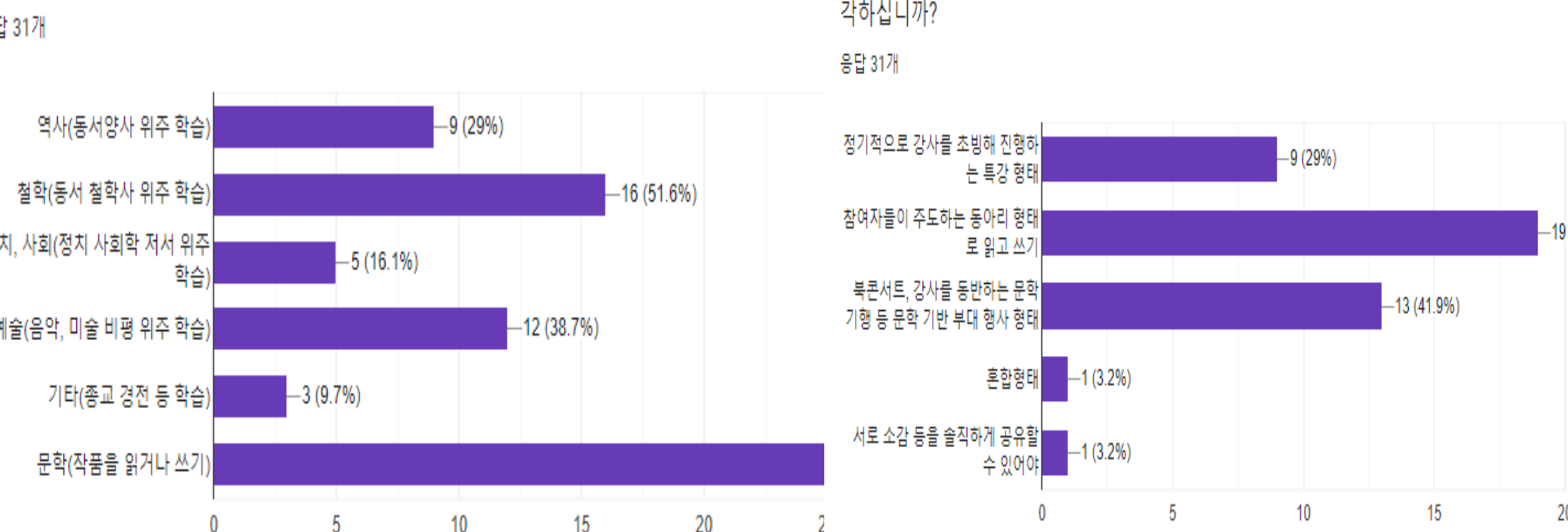
■ 김해 인문책방 ‘생의 한가운데’

- ✓ 2015년 개인 운영 인문공간으로 시작해 2022년 동네책방으로 변경 후 독립서점 중심 마을인문학 모델 만들기
- ✓ 2015-2023년 생가 ‘인문 축제’ 진행
- ✓ 작가 초청 북토크(월례 행사)
- ✓ 지역 작가들과 함께 하는 쓰기 모임
- ✓ <녹색평론> 읽기, 청소년 책읽기 모임 운영
- ✓ 이문재 시인과 함께 하는 ‘나를 위한 글쓰기’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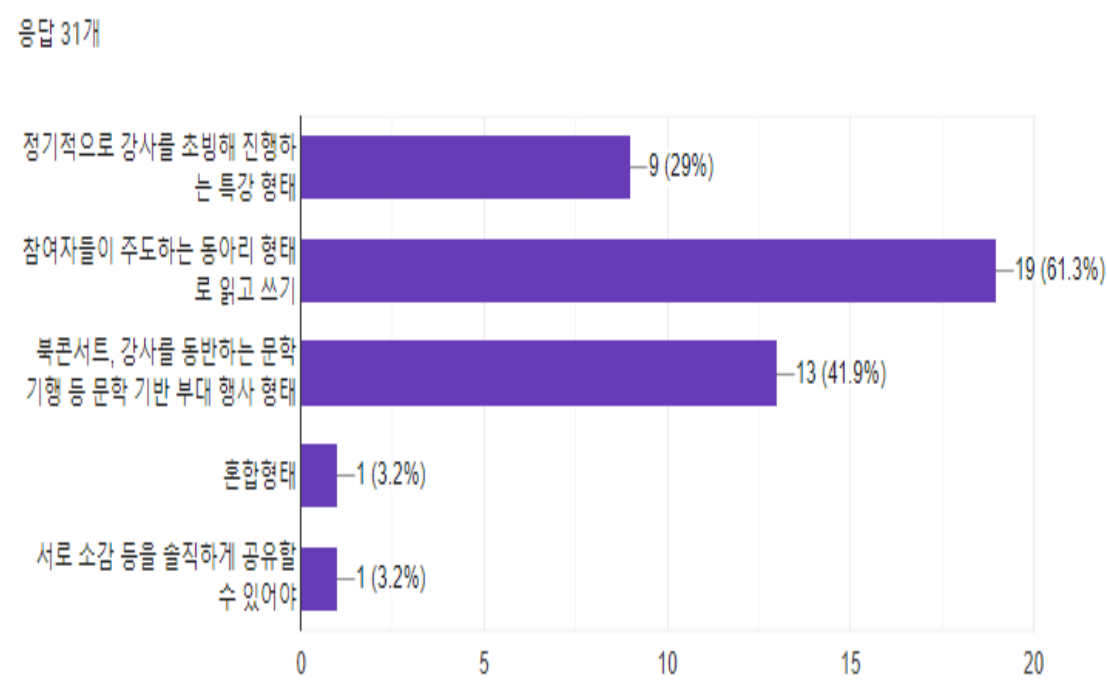
문학의 공유성에 기반한 마을인문학에 관심을!

마을인문학 커뮤니티구성원 설문 조사(2024.1.8-2024.1.13, 표본 33인)

3. 소속된 커뮤니티에서 주로 참여해온 분야는 어디입니까?(복수 체크 가능)



5. 마을인문학으로서 문학 모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때 커뮤니티 지속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7. 커뮤니티에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문학 활동은 어떤 것인지 적어주세요.

- 글쓰기, 창작작 만들기, 문학 기행....

9. 마을인문학으로서 문학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와 이유를 적어주세요.(예시: 기후위기 관련 작품)

- 환경문제, 공동체, 기후위기 등이 다수

10. 단독자의 작품 창작과 개별적 읽기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이 공통의 것으로 함께 누리는 문학 행위에는 무엇이 있겠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.

- 함께 읽고 쓰기, 작품 읽고 답사, 공동 창작...

11. 마을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거주지역 내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을 적어주세요.(예시:지역서점 쓰기 모임에 강사 파견)

- 지역민에 대학 공간, 프로그램 개방 -> 현재 대학의 평생교육
- 지역 서점과 협업해 장소, 지식, 프로그램 교류



<참고 문헌>

김영희, 「여자들이 즐거우니 세상이 편안하다」, 『로컬리티인문학』25,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, 2021.
김주현, 「지혜는 짧으나 마실은 즐겁다」, 『로컬리티인문학』13,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, 2015.
김주현, 「글쓰기의 공유성에 대한 시론」, 『어문론집』94, 중앙어문학회, 2023.
이문재, 「‘나를 위한 글쓰기 강좌’(1)-우리는 왜 글을 써야 하는가」, 『녹색평론』144, 녹색평론사, 2015.
정영교, 마을인문학, 영남대학교출판부, 2023.
제이 월재스퍼, 박현주 역, 『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』, 검동소, 2013.
피터 라인보우, 정남영 역, 『마그나카르타 선언』, 갈무리, 2012.